

지역 성장엔진 무역보험 지원…서남권 소부장 ‘홀대’

중부권 등 기업에 3조원 공급…전남광주 67억에 불과 권역별로 편차 뚜렷…“지원 관리체계 대폭 보완해야”

정부가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해 5급3특 무역보험 우대 지원에 나섰지만, 전남광주가 포함된 서남권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지원 실적은 다른 권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출금융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급3특 성장엔진 산업 우대지원 대상 소부장 기업 387곳에

총 3조1969억원의 무역보험이 공급됐다.

이 가운데 서남권 소부장 지원기업은 5곳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무역보험 공급액도 67억원으로 전체의 0.2% 수준에 그쳤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동남권은 소부장 기업 163곳에 9004억원, 대경권은 108곳에 6060억원을 공급했다. 중부권은 103곳에 1조6466억원을 지원해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강원·제주권은 8곳에 372억원을 공급했다.

서남권의 지원기업 수는 동남권의 약 33분의 1, 대경권의 약 22분의 1에 그쳤

다. 공급액 역시 동남권의 약 134분의 1, 대경권의 약 90분의 1, 중부권의 약 246분의 1 수준이다.

기업당 평균 공급액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서남권은 기업당 평균 13억4000만원으로, 동남권 55억2000만원, 대경권 56억1000만원, 중부권 159억9000만원보다 적었다. 강원·제주권의 기업당 평균 공급액인 46억5000만원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기업당 평균 공급액은 권역별 공급액을 지원기업 수로 나눈 단순 수치로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 수출계약 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지원의 형평성이나 효과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다. 산업별 지원 실적에서도 서남권의 제한적인 지원 규모가 확인됐다.

서남권에서는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소

부장 기업 5곳에 67억원이 공급됐지만 AI·미래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부장 지원 실적이 없었다. 해당 분야 일반기업 지원은 각각 1곳과 2곳으로 집계됐다.

다른 권역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소부장 지원이 이뤄졌다. 동남권은 철강 51곳과 조선 67곳에 총 6811억원을 공급했다. 대경권은 로봇·자동차부품 분야 87곳에 5000억원을 지원했다.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76곳에 1조2038억원, 이차전지 분야 11곳에 3843억원을 공급했다.

이에 권역별 주력산업과 기업별 수출규모 등이 공급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업구조를 함께 고려해 지원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전체 지원 규모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부장 지원기업 387곳 가운데 중소기업은 356곳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공급된 무역보험은 1조3725억원으로 전체의 42.9%에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 31곳에는 1조8244억원이 공급돼 전체의 57.1%를 차지했다.

현재 5급3특 성장엔진 기업에는 신용조사 수수료 50% 할인, 보험·보증료 30% 할인, 자금지원 및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동일한 우대기준을 적용해 기업 규모와 금융 여건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금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우대기준 마련과 기업 규모별 지원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5급3특은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소부장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금융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해 한도 추가 가산과 보험·보증료 추가 할인 등 전면적인 맞춤형 우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 규모별 우대 적용 기업 수와 공급액을 별도로 관리해 실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5급3특 제도가 지역 소부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5급3특 소부장 중소기업 추가 지원을 위한 보증·보험료 할인 및 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제철맞은 가을 생선 선봬 (주광주신세계가 완벽한 가을을 맞아 맛과 영양이 뛰어난 제철 수산물을 선보인다. 먼저 선보이는 고등어는 겨울을 앞두고 10월부터 지방 성분이 차올라 고소함이 으뜸이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유용하다.

전남광주 중기 수출 문턱 낮춘다…해외인증 비용 지원

의료기기 분야 최대 1억5000만원…내달 13일까지 신청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정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국가별로 다른 인증 기준과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부가 14일부터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3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 인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럽연합(EU)의 CE 인증, 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NRTL) 인증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NMPA) 허

가 등 총 583개 인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약 24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며, 글로벌 중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직접수출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인증 획

득에 필요한 비용의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은 60%, 300억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일반분야 최대 1억원이며, 의료기기 분야는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인 소액 인증은 신청 건수에 제한이 없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3차 신청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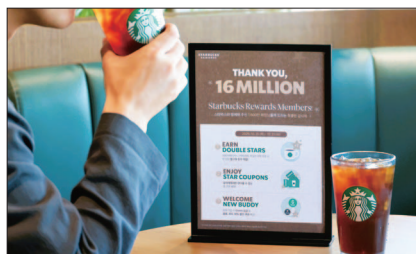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스타벅스, 회원 1600만명 돌파 기념 혜택 확대

일주일간 별 추가 적립·1+1 쿠폰 등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가 리워드 회원 1600만명 달성을 기념해 오는 15일부터 21일 까지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회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카페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등 대상 음료를 구매하면 기존 별 적립에

더해 별 2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립한 별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쿠폰도 선보인다. 고객은 기존 별 쿠폰 외에 아메리카노 1+1, 제2 음료 1+1,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 미니 홀 케이크 할인, 투고백(To Go Bag) 할인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딜리버스 배달비 무료와 미니 홀 케이크 할인, 투고백 할인 쿠폰은 이번엔



처음 도입되는 별 쿠폰이다.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리워드에 가입하면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그린 등급 승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음료와 푸드를 30% 할인받을 쿠폰도 제공된다.

스타벅스 리워드는 2011년 도입된 회

원 프로그램으로, 적립한 별을 음료 쿠폰과 푸드·상품 관련 바우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익성 스타벅스 기획담당은 “변함없이 스타벅스를 찾아주시고 스타벅스 리워드와 함께해 주신 1600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고객의 선택이 더욱 자랑스럽게 이어지고 누구나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타벅스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커피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커피하우스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광남일보 청년창업지원 캠페인

청년창업 미래를 열다



Dream 아이디어를 현실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Grow 시작했다면, 더 크게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Start 시작에 힘을 더하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Leap 더 큰 도약을 위한
돈만큼 힘
중점산업 창업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청년이 머물고, 꿈꾸고, 성장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갑니다

